

신규 학졸자의 취업자와 취업애로계층의 특성 분석

김복순

I. 서론

201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는 540천 명에 달했다. 이 중 취업자는 267천 명으로 취업률이 55.0%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상황이 좋지 않았던 2009년 취업률이 76.4%에 달했던 것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2011년 1/4분기 8.8%로 전 연령층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15~19세의 실업률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청년층 고용의 심각성은 오래 전부터 사회적 현안이었다. 이에 정부는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10년에는 청년인턴 지원, 교육훈련, 글로벌청년리더 양성, 단기일자리 제공, 취약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2011년에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여전히 실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 특히 20~29세 연령층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고용은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1/4분기 경제성장률(속보치)은 4.2%로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상향된 것이다.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 또한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상황에 힘입어 고용사정 또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년층 고용의 감소폭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더 우려가 되는 것은 노동시장으로 생애 첫 진입을 시도하는 신규 학졸자의 고용이다. 2011년 3월 현재 청년층 신규 학졸자의 실업률은 30.6%로 전년동월대비 6.3%p나 상승한 것이다. 특히 20~29세 신규 학졸자의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eesaram@kli.re.kr).

실업률은 30.9%에 달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층 신규 학졸자의 10명 중 3명은 실업자로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년층 신규 학졸자를 대상으로 취업자의 일자리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일자리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취업애로계층의 특성을 분석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최근 연령별 고용 추이 및 청년층 고용률 요인분해

2011년 3월 현재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469천 명 증가하여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423천 명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 일자리는 2011년 1/4분기 49천 개가 사라졌다. 이들 사라진 일자리는 20~29세 연령층(전년동기대비 88천 개)에서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20~29세 연령층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7.5%에 비해 상당히 낮은 15.4%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로 극심한 고용난을 겪고 있었던

<표 1> 연령별 고용증감 및 고용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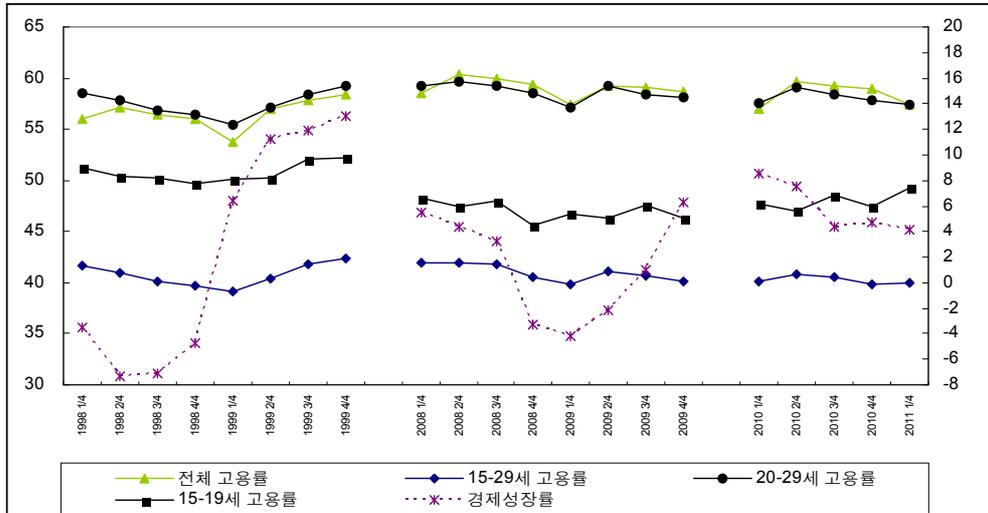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07	2008	2009	2010	2007. 1/4	2008. 1/4	2009. 1/4	2010. 1/4	2011. 1/4	
전 체	282	145	-72	323	264	209	-146	132	423	
고용 증감	10대	1	-21	-12	27	-12	-20	-34	30	40
	20대	-69	-98	-115	-69	-78	-87	-178	-41	-88
	30대	-100	-26	-173	-4	-97	-4	-159	-42	-34
	40대	77	64	-24	29	90	51	8	-21	77
	50대	258	207	198	294	216	254	193	251	285
	60대	115	18	54	47	144	15	23	-44	14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용 비중	10대	0.9	0.8	0.8	0.9	1.0	0.9	0.8	0.9	1.1
	20대	17.0	16.5	16.1	15.6	17.5	17.0	16.3	16.1	15.4
	30대	25.8	25.5	24.8	24.5	26.3	26.0	25.5	25.1	24.5
	40대	27.7	27.8	27.8	27.5	28.0	28.0	28.2	27.9	27.7
	50대	17.5	18.2	19.1	20.1	16.9	17.8	18.8	19.8	20.6
	60대	11.2	11.2	11.4	11.5	10.3	10.3	10.5	10.2	10.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1]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추이(전체, 15-29세, 15-19세, 20-29세)

(단위: %)



주: 2011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속보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9년 1/4분기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수치이다.

[그림 1]은 전체 고용률과 청년층(15~19세, 20~29세)의 고용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1년 1/4분기 전체 고용률은 57.4%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하였으나,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0.0%를 기록함으로써 전년동기대비 0.1%p 감소하였다. 청년층 고용률은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4/4분기, 1999년 1/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1/4분기, 2010년 4/4분기에 각각 39.7%, 39.2%, 39.9%, 39.9%로 나타나 조사 이래 40%대 이하를 기록하였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시기는 경기침체기로서 고용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2010년 4/4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불어 닥친 세계경제의 침체가 회복국면에 있었던 시기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또한 4.7%를 기록하면서 고용도 전년동기대비 358천 명이 증가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 특히 20~29세 연령층을 중심으로 감소한 것이다.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고용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청년층 고용률은 왜 감소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년층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지어 고용률을 분해하여 청년층 고용률 기여도 감소의 주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고용률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취업률(=취업자/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인구비중(해당 연령층의 생산가능인구/전체 생산가능인구)으로 나누어 분해하고자 한다. <표 2>는 청년층 고용률 증감률과 고용률 기여도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2011년 1/4분기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과 청

년층 인구감소가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9세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9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여파로 -4.2%를 기록하여 일자리 또한 147천개가 줄어들었다. 이 시기의 청년층 고용률 하락은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즉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증가가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표 1>과 <부표 2>는 청년층을 15~19세, 20~29세로 세분하여 고용률 증감을 요인분해한 결과이다.

<표 2> 청년층(15-29세, 20-29세) 고용률 증감 요인분해

(단위: %)

	연간	취업률	경활률	인구 비중	고용률 기여도	분기	취업률	경활률	인구 비중	고용률 기여도
<15~29세>										
요인별	2006	92.1	47.1	25.4	11.0	2006. 1/4	91.6	48.0	25.5	11.2
	2007	92.8	46.0	25.2	10.7	2007. 1/4	92.4	46.5	25.3	10.9
	2008	92.8	44.8	24.8	10.3	2008. 1/4	92.7	45.3	25.0	10.5
	2009	91.9	44.0	24.4	9.9	2009. 1/4	91.4	43.7	24.6	9.8
	2010	92.0	43.8	23.9	9.6	2010. 1/4	90.5	44.3	24.1	9.7
	2011	-	-	-	-	2011. 1/4	91.2	43.9	23.6	9.4
요인별증감률	2006	0.1	-3.4	-2.0	-5.2	2006. 1/4	0.7	-3.2	-3.0	-5.4
	2007	0.7	-2.4	-0.9	-2.6	2007. 1/4	0.9	-3.0	-1.0	-3.1
	2008	0.1	-2.6	-1.4	-3.9	2008. 1/4	0.2	-2.6	-1.2	-3.6
	2009	-1.0	-1.7	-1.6	-4.3	2009. 1/4	-1.3	-3.6	-1.4	-6.2
	2010	0.1	-0.4	-2.0	-2.3	2010. 1/4	-1.0	1.3	-2.0	-1.6
	2011	-	-	-	-	2011. 1/4	0.7	-0.8	-2.2	-2.4
<20~29세>										
요인별	2006	92.3	65.3	17.4	10.5	2006. 1/4	91.8	65.7	17.6	10.6
	2007	92.9	64.6	17.0	10.2	2007. 1/4	92.6	64.7	17.2	10.3
	2008	93.0	63.6	16.6	9.8	2008. 1/4	92.7	63.9	16.8	9.9
	2009	92.1	63.1	16.2	9.4	2009. 1/4	91.7	62.3	16.4	9.4
	2010	92.2	63.2	15.7	9.1	2010. 1/4	90.9	63.4	15.9	9.2
	2011	-	-	-	-	2011. 1/4	91.5	62.8	15.4	8.8
요인별증감률	2006	0.0	-1.6	-3.1	-4.6	2006. 1/4	0.3	-1.7	-4.0	-5.3
	2007	0.7	-1.0	-2.3	-2.7	2007. 1/4	0.9	-1.5	-2.3	-2.9
	2008	0.1	-1.6	-2.1	-3.5	2008. 1/4	0.2	-1.2	-2.2	-3.2
	2009	-0.9	-0.7	-2.6	-4.2	2009. 1/4	-1.1	-2.5	-2.1	-5.7
	2010	0.1	0.0	-3.2	-3.0	2010. 1/4	-0.9	1.8	-3.2	-2.4
	2011	-	-	-	-	2011. 1/4	0.7	-0.9	-3.2	-3.5

주: 고용률 기여율은 취업률×경제활동참가율×연령층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Ⅲ. 신규 학졸자의 일자리 특성 및 취업애로계층의 특성

교육과학기술부 「취업통계」에 의하면 201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55.0%가 취업하였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10년 3월 초대졸 이상 신규 졸업자는 418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2.6%인 262천 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¹⁾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이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매년 신규 학졸자는 생애 첫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경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년 3월 기준 청년층 신규 학졸자를 대상으로 취업자와 취업애로계층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표 3〉 청년층 신규 학졸자의 규모·고용률·실업률·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단위: 천 명,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신규학졸자	고용률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증가율
청년층 (15~29세)	2006. 3	198	77	177	452	43.8	28.1	-17.8
	2007. 3	204	58	192	454	44.9	22.2	8.6
	2008. 3	186	82	211	479	38.9	30.5	10.1
	2009. 3	184	83	220	486	37.8	31.1	4.1
	2010. 3	191	61	213	465	41.1	24.3	-3.1
	2011. 3	211	93	223	527	40.0	30.6	4.9
15~19세	2006. 3	27	3	82	113	24.3	11.0	-18.3
	2007. 3	27	8	91	126	21.7	21.7	11.2
	2008. 3	26	3	89	118	21.9	11.3	-2.5
	2009. 3	21	7	91	118	17.6	24.3	2.1
	2010. 3	20	10	95	124	15.9	32.7	4.6
	2011. 3	26	11	106	143	18.3	29.0	11.7
20~29세	2006. 3	170	74	95	339	50.3	30.3	-17.3
	2007. 3	177	51	101	328	53.9	22.3	6.2
	2008. 3	160	78	122	361	44.5	32.8	21.4
	2009. 3	163	76	129	368	44.3	31.9	5.6
	2010. 3	171	52	118	341	50.3	23.2	-8.5
	2011. 3	184	82	117	384	48.0	30.9	-0.5

주: 청년층 신규 학졸자는 15~29세 연령층 중 조사연도 3월에 졸업한 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01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는 2009년 8월 졸업자와 2010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4월 1일 기준 조사한 것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률을 계산한 것이다.

우선 청년층 신규 학졸자의 규모를 보면 2011년 3월 기준 527천 명이며, 이 중 20~29세 연령층이 384천 명에 달한다. <표 4>를 보면 2011년 3월 청년층 신규 학졸자의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1.1%p 하락한 40.0%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신규 학졸자의 실업률은 30.6%로 전년동월대비 6.3%p나 상승하였다.

청년층 연령을 세분하여 보면 29~29세 연령층에서의 고용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이 두드러진 반면, 15~19세 연령층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괄목할 만하다. 15~19세 신규 학졸자 중 고등교육기관 등을 위한 진학이나 진학준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 특히 2011년 3월에는 15~19세 신규 학졸자 중 진학이나 진학준비로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로 머무르는 비중이 29.7%로 전년동월대비 4.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9세 연령층에서는 실업률의 상승이 가장 눈에 띄는데 무려 전년동월대비 7.7%p가 상승한 것이다.

2011년 1~2월 평균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모두 전년동월대비 각각 11.7%, 2.5% 증가하였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3.6%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였다. 이와 같이 경기도 회복기조이고 더불어 고용회복세도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년층 신규 학졸자의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1. 신규 학졸자의 일자리 특성

그렇다면 청년층 신규 학졸자의 일자리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 청년층의 각종 고용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20~29세 신규 학졸자를 중심으로 일자리 변화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0~29세 신규 학졸자 중 취업자는 2011년 3월 현재 184천 명으로, 이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57.6%로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위기로 인한 극심한 고용악화를 겪었던 2009년 3월에는 여성의 취업비중이 무려 61.1%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증가한 여성들의 일자리는 주로 서비스·판매직에 집중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공공행정 부문에서의 청년인턴 등 임시직 일자리가 제공됨에 따라 임시직 비중 또한 높다.

20~29세 신규 학졸자의 취업의 또 다른 특징은 서비스 부문에 취업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2011년 3월 현재 20~29세 신규 학졸자의 서비스업 취업비중은 83.2%에 달해 20~29세 연령층에서의 동 부문으로의 취업비중(77.8%)보다 높다. 이는 최근 들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의 취업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취업비중은 2011년 3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8.5%p나 증가한 19.5%를 기록하고 있다.

<표 4> 20-29세 신규 학졸자의 특성별 고용비중

(단위: %)

		2004. 3	2005. 3	2006. 3	2007. 3	2008. 3	2009. 3	2010. 3	2011. 3
고용률			52.3	50.3	53.9	44.5	44.3	50.3	48.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	남자	44.1	47.9	44.3	45.9	46.3	38.9	41.1	42.4
	여자	55.9	52.1	55.7	54.1	53.7	61.1	58.9	57.6
지위	상용직	50.3	50.7	50.0	56.8	57.4	47.1	50.1	56.8
	임시직	36.1	33.0	38.1	34.2	29.5	38.8	41.0	35.4
	일용직	9.2	11.2	6.3	5.0	5.8	8.5	5.4	3.0
	고용주	0.6	0.0	0.0	0.2	1.0	0.0	0.3	0.0
	자영자	2.1	3.3	2.0	0.7	1.7	4.2	2.1	1.4
	무급가족종사자	1.7	1.7	3.6	3.1	4.6	1.4	1.1	3.4
	고졸 이하	0.0	0.3	0.9	0.2	0.3	0.6	0.0	0.0
학력	초대졸	46.7	47.9	47.8	43.9	36.9	45.1	48.2	44.1
	대졸	46.9	47.2	48.6	48.9	60.1	49.4	50.1	53.0
	대학원졸	6.3	4.7	2.7	6.9	2.7	4.9	1.7	3.0
계열	인문사회계열	28.7	30.5	35.8	36.1	37.6	42.3	37.3	37.4
	예체능계열	9.5	13.1	11.0	10.1	11.5	8.4	9.9	14.5
	사범계열	4.9	6.9	8.1	6.1	6.1	8.5	7.2	6.0
	자연계열	13.6	15.7	11.5	15.1	12.6	10.5	13.5	9.9
	공학계열	36.3	27.7	27.8	28.1	24.5	20.1	24.7	21.3
	의약계열	7.1	6.0	5.8	4.5	7.7	10.2	7.5	10.9
직종	전문가 등	38.4	39.4	43.3	43.7	41.5	40.1	45.4	39.5
	사무종사자	29.0	32.3	25.7	32.0	34.7	27.5	27.3	27.2
	서비스종사자	8.6	7.6	7.9	6.8	9.4	16.2	6.7	8.1
	판매종사자	7.8	8.7	7.1	8.1	5.4	7.7	6.8	12.3
	단순노무직	4.1	4.9	8.7	3.1	3.3	3.1	3.0	3.8
	기타	12.0	7.2	7.3	6.3	5.8	5.4	10.8	9.1
산업	제조업	20.5	25.6	19.9	16.2	13.6	9.3	14.8	16.1
	서비스업	72.8	69.3	77.1	77.2	80.4	88.5	82.4	83.2
	도소매업	14.7	12.7	11.4	13.7	6.7	10.4	8.7	11.5
	숙박음식점업	6.3	5.0	7.1	6.6	3.6	12.1	5.7	7.9
	과학기술 등	8.9	3.2	4.2	7.8	11.9	9.6	10.5	10.2
	사업시설지원	2.3	4.6	5.0	4.8	3.2	5.1	3.6	4.1
	공공행정	2.0	1.3	1.7	1.9	1.9	5.7	4.6	0.9
	교육서비스업	16.4	18.4	19.2	17.8	16.9	18.5	20.3	11.6
	보건사회복지업	5.8	7.8	10.2	6.0	11.9	12.1	11.0	19.5
기타	16.5	16.2	77.1	77.2	80.4	88.5	82.4	83.2	
규모	300인 미만	86.2	81.9	85.7	88.5	85.0	85.8	84.9	86.3
	300인 이상	13.8	18.1	14.3	11.5	15.0	14.2	15.1	13.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신규 학졸자의 서비스 부문으로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3월 현재 20~29세 신규 학졸자의 제조업으로의 취업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균에 밀리는 수준이다. 특히 기존의 고용부진을 벗고 2010년 1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제조업에서의 고용은 2010년 한 해 동안 191천 명 증가하였고, 최근 매월 약 20만 개 정도의 고용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9세 신규 학졸자의 제조업으로의 취업은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9세 신규 학졸자의 고용형태별 비중을 보면 정규직 비중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29세 신규 학졸자에게 제공된 일자리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9년 3월의 경우 20~29세 신규 학졸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무려 전년동월대비 7.2%p가 증가한 3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시기에 20~29세 연령층 전체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줄어들었던 것과 상반된다. 한편 신규 학졸자의 고용형태는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0년 3월 현재 남성근로자의 비정규직으로의 입직이 상당히 줄어든 반면,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은 40.4%로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신규 학졸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2010년 3월 현재 70.3% 수준으로 나타나 임금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남성의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는 66.3%로 금융위기 때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20~29세 신규 학졸자 중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비중 및 임금수준

(단위: %, 만 원)

		규 모				임금수준			
		2007. 3	2008. 3	2009. 3	2010. 3	2007. 3	2008. 3	2009. 3	2010. 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23	134	123	122
	정규직	69.0	69.4	62.2	68.1	127	142	138	135
	비정규직	31.0	30.6	37.8	31.9	115 (90.9)	116 (82.1)	97 (69.8)	95 (70.3)
남자	정규직	64.2	74.3	66.2	80.4	148	164	166	148
	비정규직	35.8	25.7	33.8	19.6	135 (91.5)	133 (81.6)	110 (66.4)	98 (66.3)
여자	정규직	73.2	65.2	59.8	59.6	111	120	119	122
	비정규직	26.8	34.8	40.2	40.4	93 (83.2)	106 (87.7)	89 (75.0)	94 (76.4)

주: ()안은 정규직 임금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표 6> 20~29세 신규 학졸자 중 임금근로자의 취업사유별 비중

(단위: %)

	신규 학졸자				비정규직			
	2007. 3	2008. 3	2009. 3	2010. 3	2007. 3	2008. 3	2009. 3	2010. 3
근로조건 만족	33.5	29.4	22.9	24.5	35.4	16.3	25.1	13.8
안정적인 일자리	21.4	27.3	25.6	20.7	14.7	20.7	10.1	11.0
당장수입이 필요해서	4.2	6.0	6.7	4.1	4.1	10.6	3.1	1.9
원하는 분야 일자리가 없어서	5.1	7.4	8.1	13.4	3.1	14.8	18.0	16.7
전공·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3.6	4.2	5.4	8.5	2.9	2.3	6.4	10.6
직장이동을 위해	24.3	20.6	23.2	21.6	23.5	22.0	26.9	27.4
육아·가사 병행	0.0	1.1	0.5	0.0	-	3.6	-	-
학업수강, 직업훈련 등 병행	4.8	3.5	5.4	5.9	10.5	8.1	9.4	15.9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0.9	0.3	1.3	0.3	2.9	1.0	0.9	0.9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1.4	0.2	0.9	0.0	2.9	0.6	-	-
기타	0.7	0.0	0.0	1.0	-	-	-	1.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29세 신규 학졸자가 학교를 막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일자리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이들의 현 직장을 취업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았다.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된 취업사유를 분석한 결과 근로조건에 만족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여서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13.4%)’,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8.5%)’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취업한 비중이 예년에 비해 높아 조금은 우려스럽기도 하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입직한 경우 직장이동을 위해서 현 직장에 취업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현 직장을 근로조건이나 원하는 분야의 다음 직장을 찾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신규 학졸자의 취업애로계층 특성

2011년 3월 현재 20~29세 신규 학졸자 384천 명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82천 명에 달해 실업률이 30.9%에 이르고 있다. 학력별로는 대졸 신규 학졸자의 24.5%, 대학원졸 신규 학졸자의 37.1%가 실업상태에 놓여 있으며, 계열별로는 자연계열 29.2%, 공학계열 23.5%, 인문사회계열이 21.1% 순으로 실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20~29세 신규 학졸자 중 학력별·계열별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2004. 3	2005. 3	2006. 3	2007. 3	2008. 3	2009. 3	2010. 3	2011. 3
학력	초대졸	20.7	17.1	18.5	15.2	23.5	15.4	14.2	15.2
	대졸	22.8	18.2	24.8	15.9	20.8	24.5	15.7	24.5
	대학원졸	24.7	8.6	11.5	15.1	25.1	23.7	15.3	37.1
계열	인문사회계열	27.7	15.7	19.0	18.1	15.0	21.7	13.4	21.1
	예체능계열	20.0	11.1	24.0	9.9	32.4	12.4	19.0	20.1
	사범계열	5.3	7.9	0.0	5.9	13.1	3.4	0.0	4.1
	자연계열	19.1	23.6	32.1	14.4	23.2	27.7	14.6	29.2
	공학계열	21.7	18.6	24.6	17.4	26.8	26.5	18.3	23.5
	의약계열	12.9	26.1	21.6	12.3	25.3	13.3	23.2	17.6

주: 신규 학졸자 중 초대졸 이상을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이들 실업자를 포함해서 20~29세 신규 학졸자의 45.7%에 이르는 175천 명이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애로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9세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애로계층이 17.0%에 달해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특히 남성 신규 학졸자 중 취업애로계층이 2011년 3월 51.6%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7.9%p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동 시기 여성 신규 학졸자의 취업애로계층이 전년동월대비 줄어든 것과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 특히 이제 막 사회의 문을 내딛는 신규 학졸자의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층 취업준비생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표 8> 20~29세 신규 학졸자의 취업애로계층 규모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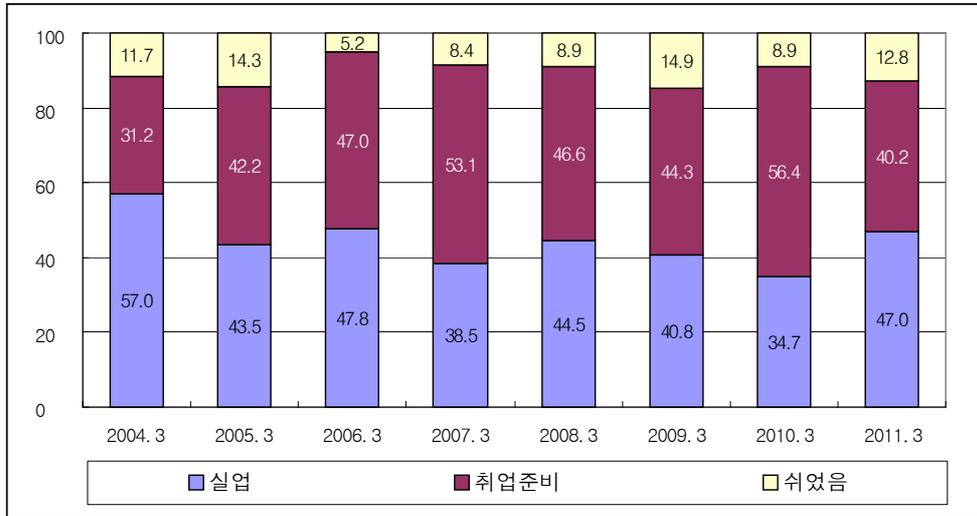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04. 3	2005. 3	2006. 3	2007. 3	2008. 3	2009. 3	2010. 3	2011. 3
실업(A)		94	65	74	51	78	76	52	82
비경활		101	114	95	101	122	129	118	117
취업준비(B)		52	63	73	70	82	83	84	71
쉬었음(C)		19	21	8	11	16	28	13	22
취업애로층(A+B+C)	규모	166	150	155	132	176	187	149	175
	비중	38.8 (12.6)	39.9 (13.8)	45.6 (14.6)	40.3 (14.0)	48.9 (15.7)	50.9 (16.3)	43.7 (16.8)	45.7 (17.0)

주: ()안은 20~29세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애로계층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2] 20~29세 신규 학졸자의 취업애로계층 구성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특히 20~29세 연령층의 신규 학졸자를 대상으로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과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애로계층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최근 세계경제의 경기회복과 더불어 수출호조로 2011년 1/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4.2%(한국은행 속보치)를 기록하였다. 더불어 고용도 금융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층에서의 고용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20~29세 신규 학졸자의 실업률은 30.6%에 달하고 있어 이들의 고용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또한 15~29세 신규 학졸자 중에서는 진학이나 진학준비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비중이 최근 높아지고 있으며, 20~29세 취업애로계층은 신규 학졸자의 절반 가까이 이른다.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 신규 학졸자의 취업애로계층 비중이 큰 폭으로 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을 하고 싶어도 직장을 얻는 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취업애로계층이 늘고 있다는 것에 정책적인 관심을 집중하여 취업준비생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렵게 직장을 얻은 20~29세 신규 학졸자의 일자리 선택 동기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현 직장에 취업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직장이동을 위해 현 직장을 선택한 비중이 높아 직장이동이 빈번한 청년층에서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노동이동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고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 고용대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정책적 효과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 나아가 사회에 생애 첫 발을 내딛는 신규 학졸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KLI**

<참고문헌>

남재량(2011), 「체감 청년 실업률, 몇 %나 될까?», 『노동리뷰』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남공인철(2010),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 『일자리정책연구』 제6호, 국회예산정책처.

<부표 1> 청년층(15~19세) 고용률 요인분해

(단위: %)

		연간	취업률	경활률	인구 비중	고용률 기여도	분기	취업률	경활률	인구 비중	고용률 기여도
요인	전체	2006	89.6	7.5	8.0	0.5	2006. 1	89.1	8.9	7.9	0.6
		2007	90.7	7.3	8.2	0.5	2007. 1	90.4	8.1	8.1	0.6
		2008	89.8	6.5	8.2	0.5	2008. 1	91.5	7.2	8.2	0.5
		2009	87.7	6.2	8.2	0.4	2009. 1	86.2	6.3	8.2	0.4
		2010	88.1	7.0	8.2	0.5	2010. 1	85.0	7.3	8.2	0.5
							2011. 1	87.3	8.5	8.2	0.6
	남자	2006	89.6	6.3	8.5	0.5	2006. 1	87.1	7.6	8.5	0.6
		2007	90.5	6.5	8.8	0.5	2007. 1	88.7	6.8	8.7	0.5
		2008	87.7	5.6	8.7	0.4	2008. 1	90.3	5.9	8.7	0.5
		2009	84.9	4.9	8.7	0.4	2009. 1	82.3	5.0	8.7	0.4
		2010	84.9	5.5	8.8	0.4	2010. 1	78.3	5.6	8.8	0.4
							2011. 1	85.9	7.0	8.7	0.5
	여자	2006	89.6	8.9	7.5	0.6	2006. 1	90.7	10.3	7.4	0.7
		2007	90.8	8.1	7.6	0.6	2007. 1	91.7	9.5	7.6	0.7
		2008	91.5	7.5	7.7	0.5	2008. 1	92.4	8.6	7.7	0.6
2009		89.7	7.5	7.7	0.5	2009. 1	88.9	7.8	7.6	0.5	
2010		90.4	8.5	7.7	0.6	2010. 1	89.5	9.3	7.7	0.6	
						2011. 1	88.4	10.1	7.7	0.7	
요인별 증감률	전체	2006	2.3	-17.4	0.6	-14.9	2006. 1	6.6	-13.5	-0.8	-8.6
		2007	1.2	-3.7	2.2	-0.4	2007. 1	1.4	-8.9	2.0	-5.7
		2008	-1.0	-9.9	0.0	-10.7	2008. 1	1.3	-11.6	0.9	-9.6
		2009	-2.3	-5.6	0.2	-7.6	2009. 1	-5.8	-11.8	-0.1	-17.0
		2010	0.5	12.7	0.4	13.7	2010. 1	-1.3	16.2	0.6	15.3
							2011. 1	2.7	15.1	-0.3	17.8
	남자	2006	3.3	-22.2	0.9	-19.0	2006. 1	5.0	-16.0	-0.6	-12.3
		2007	1.0	3.6	2.4	7.2	2007. 1	1.9	-10.0	2.4	-6.2
		2008	-3.0	-13.4	-0.3	-16.3	2008. 1	1.8	-14.4	0.6	-12.3
		2009	-3.2	-12.0	0.2	-14.7	2009. 1	-8.9	-14.9	-0.1	-22.6
		2010	0.0	11.4	0.4	11.8	2010. 1	-4.9	12.3	0.7	7.5
							2011. 1	9.7	24.7	-0.4	36.2
	여자	2006	1.6	-13.2	0.3	-11.6	2006. 1	7.7	-11.4	-1.1	-5.6
		2007	1.4	-9.2	1.9	-6.2	2007. 1	1.1	-7.8	1.5	-5.4
		2008	0.7	-6.8	0.3	-5.9	2008. 1	0.8	-9.4	1.2	-7.6
2009		-1.9	-0.4	0.1	-2.1	2009. 1	-3.8	-9.5	-0.1	-13.0	
2010		0.8	13.7	0.3	14.9	2010. 1	0.6	19.0	0.5	20.4	
						2011. 1	-1.2	8.7	-0.2	7.2	

주: 고용률 기여율은 취업률×경제활동참가율×연령층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부표 2> 청년층(20-29세) 고용률 요인분해

(단위: %)

		연간	취업률	경활률	인구 비중	고용률 기여도	분기	취업률	경활률	인구 비중	고용률 기여도
별 인 별	전체	2006	92.3	65.3	17.4	10.5	2006. 1	91.8	65.7	17.6	10.6
		2007	92.9	64.6	17.0	10.2	2007. 1	92.6	64.7	17.2	10.3
		2008	93.0	63.6	16.6	9.8	2008. 1	92.7	63.9	16.8	9.9
		2009	92.1	63.1	16.2	9.4	2009. 1	91.7	62.3	16.4	9.4
		2010	92.2	63.2	15.7	9.1	2010. 1	90.9	63.4	15.9	9.2
								2011. 1	91.5	62.8	15.4
	남자	2006	91.0	67.3	16.7	10.2	2006. 1	90.6	67.7	16.8	10.3
		2007	90.9	66.5	16.4	9.9	2007. 1	90.7	66.7	16.6	10.0
		2008	91.6	64.6	16.1	9.5	2008. 1	91.4	64.8	16.3	9.6
		2009	90.4	64.6	15.7	9.2	2009. 1	89.6	63.2	16.0	9.0
		2010	90.9	64.0	15.3	8.9	2010. 1	89.9	64.1	15.5	8.9
								2011. 1	90.0	63.7	15.0
	여자	2006	93.5	63.5	18.0	10.7	2006. 1	92.9	63.9	18.2	10.8
		2007	94.8	62.9	17.5	10.4	2007. 1	94.3	62.9	17.7	10.5
		2008	94.3	62.7	17.1	10.1	2008. 1	94.0	63.1	17.3	10.2
2009		93.8	61.8	16.6	9.6	2009. 1	93.7	61.4	16.9	9.7	
2010		93.5	62.4	16.1	9.4	2010. 1	91.8	62.7	16.3	9.4	
							2011. 1	92.8	62.0	15.8	9.1
별 인 별 성 감 별	전체	2006	0.0	-1.6	-3.1	-4.6	2006. 1	0.3	-1.7	-4.0	-5.3
		2007	0.7	-1.0	-2.3	-2.7	2007. 1	0.9	-1.5	-2.3	-2.9
		2008	0.1	-1.6	-2.1	-3.5	2008. 1	0.2	-1.2	-2.2	-3.2
		2009	-0.9	-0.7	-2.6	-4.2	2009. 1	-1.1	-2.5	-2.1	-5.7
		2010	0.1	0.0	-3.2	-3.0	2010. 1	-0.9	1.8	-3.2	-2.4
								2011. 1	0.7	-0.9	-3.2
	남자	2006	0.0	-1.9	-2.7	-4.5	2006. 1	0.5	-2.8	-4.0	-6.3
		2007	-0.1	-1.1	-1.9	-3.1	2007. 1	0.2	-1.4	-1.6	-2.8
		2008	0.7	-2.9	-1.8	-4.0	2008. 1	0.7	-2.9	-1.8	-3.9
		2009	-1.3	-0.1	-2.4	-3.6	2009. 1	-2.0	-2.5	-1.9	-6.3
		2010	0.6	-0.9	-3.0	-3.3	2010. 1	0.4	1.5	-3.0	-1.3
								2011. 1	0.2	-0.6	-3.2
	여자	2006	0.0	-1.3	-3.4	-4.7	2006. 1	0.2	-0.6	-3.9	-4.3
		2007	1.4	-1.1	-2.7	-2.4	2007. 1	1.5	-1.6	-3.0	-3.0
		2008	-0.4	-0.3	-2.3	-3.1	2008. 1	-0.4	0.3	-2.5	-2.6
2009		-0.6	-1.3	-2.7	-4.6	2009. 1	-0.3	-2.6	-2.3	-5.1	
2010		-0.3	0.9	-3.3	-2.8	2010. 1	-2.0	2.0	-3.4	-3.4	
							2011. 1	1.1	-1.2	-3.3	-3.4

주: 고용률 기여율은 취업률×경제활동참가율×연령층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